

# 광주 도심 장기 방치 '대표 흉물들' 사라지나

### 시, 소유주 등 만나 정비계획 마련... 옛 서진병원 내내까지 철거 계획 짓다 멈춘 농성동 철골건물·주월동 요양병원 올해 안 공사 재개 방침 광산구 삼거동 건물 제외 속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 고민해야

공사중단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광주 도심 흉물로 방치되던 건축물들이 철거되거나 재단장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던 광주도심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장기방치건축물'은 총 4곳(서구 1곳, 남구 2곳, 광산구 1곳)이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기간이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광주시는 최근 장기방치 건축물 4곳 중 3곳(광주시 남구 옛 서진병원 건물,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 서구 농성동 서구청 맞은편 철골 건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웠다.

광주시가 토지소유주와 공사 발주자 등을 직접 만나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방치 건축물인 옛 서진병원 건물(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 연면적 2만 3144.61㎡)은 2025년까지 철거를 할 계획이 나왔다. 이 건물은 당시 건축주가 외대 유지를 위해 짓다 자금난 등으로 1995년 공사를 중단한 이래 방치되고 있다.

해당 건물은 부동산개발업자가 건물을 둘러싼 토지 일부를 사들인 이후 지난 2020년 건물철거 등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건물 소유주가 소재불명인데다, 건물부지 16%에 대한 소유권 갈등 등으로 건축물 철거를 위한 집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건축주와 토지주간의 이해관계가 우선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경매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철거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 농성동 철골건물과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은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지상 10층 규모의 서구 농성동 철골건물(연면적 9945.35㎡)은 2007년 공사를 중단한 후 소유권 분쟁 등으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모두 종료 됨에 따라 건축주가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검토 후 올해 상반기에 설계변경 등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리모델링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건축주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부도가 나 공사가 10년째 멈춰 있던 남구 주월동 10층짜리 요양병원 건물(연면적 5306.4㎡)도 올 안으로 공사 재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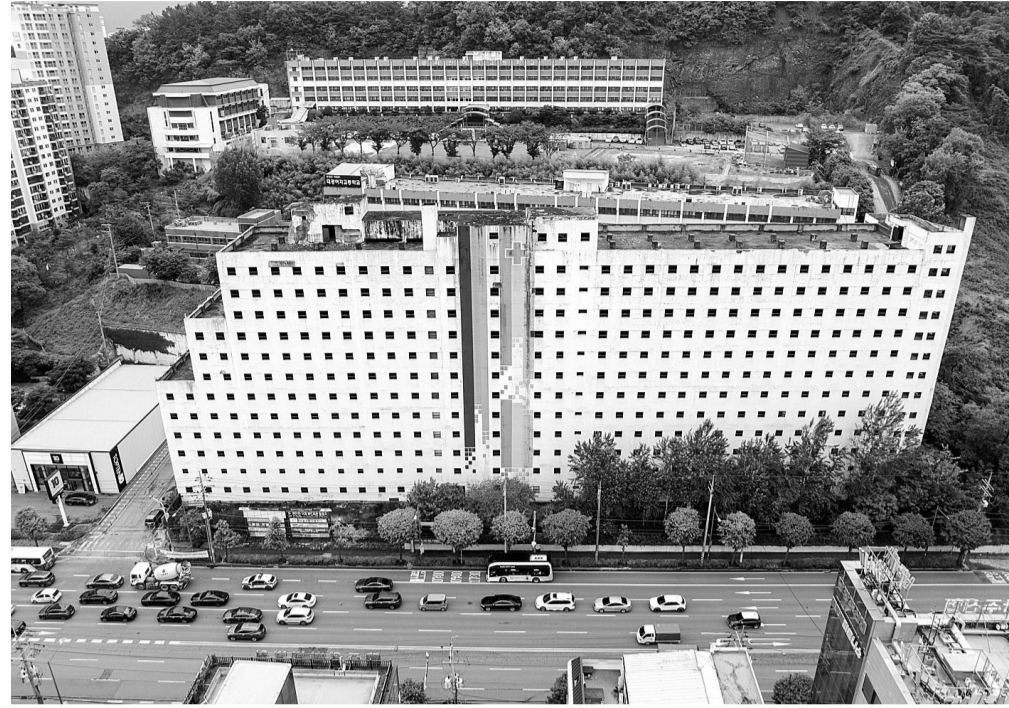
토지소유주 건축물에 대한 경매를 낙찰받아 공사를 재개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황 탓에 남은 공사 준공 자금에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6년 흥복학원이 학교를 짓겠다며 추진했던 광산구 삼거동 건물은 교육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면서 정비 계획에서 빠져 아직도 장기방치 건축물에 해당한다.

지역민들은 지지부진하게 방치되던 건축물 정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기원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건축물이 장기방치되면서 노숙인 등이 드나들어 무섭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서구 농성동 방치 건축물 맞은 편에 거주하는 문



30년째 방치된 광주시 남구 옛 서진병원 건물(왼쪽)과 10년째 공사가 중단된 남구 주월동 요양병원 건물이 광주 도심속 흉물로 전락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복(여·74)씨는 "주민들이 모일 때마다 건물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밤에 무서워서 집 밖을 나다닐 수가 없다. 경찰들이라도 자주 순찰을 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건축물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집행이나 실질적 유도책이 없다면 방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한 면담위주의 해결책이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은 "민간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가 사유재산이라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 간소화나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그래도 힘들다면 시가 매입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법원 "더 큰 책임있는 관련자들 왜 기소 안했나"

### 수사기관에 쓴소리... 2심서 "수영장 익사사고 안전관리자 감형 정당"

법원이 과실치사 사건 재판에서 더 큰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수사기관을 꼬집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동욱)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A(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31일 오후 6시 40분께 여수시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B(4)군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생 1명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해 안전사고와 발생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함께 방만한 아버지와 잠시 떨어지게 되자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명조끼를 벗고 깊이 112cm의 수영장에 홀로 들어가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이용객이 범비자 A씨는 현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군

을 발견하지 못했다. B군은 16분간 방치되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안전펜스, 안전요원의 고용 등을 통해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장에 근무한 직원수로는 수영장을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들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고 A씨만을 기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정은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1심에서 충분히 고려했고 1심의 형이 재판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입주 앞둔 무안 새 아파트 830세대 하자만 6만건

### 바닥 수평 맞지 않고 창문틀 뒤틀리고 휘어져... 지하주차장 누수도 입주자 예정자들 "군에 준공 승인 말라" 분통... 시공사 "준공 전 처리"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수만 건에 달하는 하자가 발생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오룡 입주예정자협의회(협의회)는 9일 "최근 무안군수와 면담에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에는 아파트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요구했다"면서 "군이 나서 아파트 하자문제를 완결하고 업체와 중재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아파트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들은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현대힐스테이트

1·2단지 예비입주자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사전방문 기간에 전체 830세대에서 접수된 하자만 최소 6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큰 문제는 바닥이나 벽면의 수평이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2동과 203동의 일부 바닥은 구슬이 저절로 굴러다닐 정도로 수평이 맞지 않고 벽면 콘크리트도 처치거나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

내부 창문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져 있고 창틀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흔들리는 경우도 많았다.

지하주차장엔 누수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콘크리트가 고스란히 노출된 곳이 있는가 하면

베란다 난간이 볼트로 고정돼 파손 우려가 크다.

입주 한 달여를 앞두고 있음에도 모든 콘센트는 미사공 상태이며 화장실, 부엌, 탐침 전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은 세대가 다수였다. 대표소에는 120cm 정도의 난간만 설치돼 있고 방화문에는 잠금장치도 없어 외부 침입이 무방비였다.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자 전남도는 검공 전문위원들을 보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무안군은 "경미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중대한 하자는 사용승인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겠다"면서 "현 상태로는 준공승인은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난 8일 안전점검에서 나온 구조재와 균열 등 시공하자 등 지적사항을 준공전에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 적발 '직위해제'

### 여수서 출근길 숙취운전

현직 경찰관이 숙취운전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께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 요금소에 서 여수경찰 소속 A 경장이 고속도로순찰대의 음

주 단속에 걸렸다.

A 경장은 전날 밤 과음 후 출근길에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8%였다고 전해졌다.

여수경찰은 A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